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일공동예배 일정을 안내합니다.
 - 1일: 어린이주일(꾸러기, 어린이사랑방 예배 준비)
 - 8일: 아버지주일(아버지 초청예배, 감사순서)
 - 15일: 청소년주일(푸른꿈사랑방 예배 준비)
 - 22일: 젊은이주일(늘푸른, 젊은이사랑방 예배 준비, 성년축하)
 - 29일: 부부주일(가족 총동원 예배, 가족 나들이)
- 지난 29일(금) 일본비전교회 훈련생들이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 5월 2일(월) 장신대 신대원 1학년 목회실습생들을 줌으로 만납니다.
 - 3일(화) 소명교육공동체(소명학교) 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석지원 청년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8 호

2022년 5월 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꽃주일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매년 5월 첫 주일에 지키는 어린이주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첼시의 제일 유니버설 목사였던 레나드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정하고 부모들의 헌신을 강조하였고 1868년 미국 감리교의 한 위원회에서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킬 것을 건의하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83년 미국 장로교 총회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6월 첫 주일을 꽃주일로 기념했고 1925년부터 5월 첫 주일을 꽃주일, 즉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위해 192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소파 방정환이 일본 도쿄대학 문학부에 재학중일 때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를 조직했으며 귀국 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년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어린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어린이'란 말을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으며 1922년에는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재정하여 어린이를 아끼고 위해주자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1927년 5월 첫 주일로 변경하였고 1946년에 이를 다시 5월 5일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여 현재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꾀하며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에게서는 어린이주일에 교회마다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꽃주일'로 호칭했고 6월 첫 주, 혹은 5월 첫 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날을 5월이나 6월 첫 주로 정한 이유는 그때가 꽃이 가장 많이 피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꽃에 대해 강론하기도 하였고 당시 교회에 꽃을 특별히 관리하는 이를 '화모'로 불렀습니다.

[출처-교회 용어 사전 어린이주일, 꽃주일]

사랑방공동체에서는 어린이주일을 5월 첫 번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 사진을 디지털화 할 때 그 사진 속에서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주일에 어린이들이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진행합니다. 지킴이, 안내, 인도, 대표기도, 성가대, 봉헌기도, 봉헌위원 등 긴장되는 마음으로 순서를 맡아 진행하는 모습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을 더욱 진실하고 순수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미숙하지만 기쁘게 보실 듯 합니다.

1973년에 노벨상을 탄 오스트리아 학자 로렌츠는 인공부화로 갓 태어난 새끼오리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마치 어미 오리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이어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후 초기에 나타나는 본능적인 행동을 각인이라고 했습니다. 각인효과는 새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포유류, 어류, 곤충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은 말로 그 행동과 모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거울속의 모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이 행동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질 때 후대에 전해지는 모습으로 부모의 신앙의 모습들이 습관처럼 전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기뻐하는 모습, 힘듦과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모습 등을 통해서 새겨지고 배워갑니다.

꽃은 식물에게 있어 가장 예쁘고 화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린이주일, 꽃과 같은 우리의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축복합니다. 사랑방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 삶이 잘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최기찬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 사무엘기상 1장 28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로마서 5장 12~21절

제목 : 새로운 존재로의 부르심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전경희 집사

찬송 : 288 91 459

관찰]

12~14 죄에 무더져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됨.

15~17 선물로 주어진 생명안에서의 왕 노릇.

19~21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해석]

1. 죄로인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3. 율법은 죄를 멈추게 할 수 없지만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는 도구가 됩니다.

적용]

1.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함을 깨닫자.

2.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자.

3. 아버지 하나님과 죄 속에 있던 나의 삶의 차이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1. 어린이날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시현: 방정환 선생님

아영: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진수성찬. 어린이학교의 멋부리는 날

진용: 어린이날 선물 / 하민: 꽃다발 선물

하성: 배개의 날에 이어람 선생님 집에서 잔 거 / 하은: 노래 부르기

2.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요.

아영: 우리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분이세요.

진용: 우리 죄를 사해주신 분이예요. / 민용: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예요.

하민: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 치킨과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분이예요.

3.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할 건가요?

시현: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아요.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영: 예수님께 엎어달라고 할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동물이 있는지 물어보고 갖고 싶은 것 만들어달라고 할래요.

진용: 질문을 아주 많이 100개 넘게 할 거예요.

민용: 궁금한 것 물어 보고 같이 놀래요.

하민: 함께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할 거예요.

하은: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메롱하고 같이 트램펄린 타고 놀거예요. 코뮌빵도 먹고 고구마도 먹을 거예요. / 하성: 같이 놀 것 같아요.

4. 공동체 교회 분들께 하고 싶은 말

시현: 어린이날 축하해주세요.

아영: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용: 어린이 선생님께 공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용: 지금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민: 저희를 많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치킨도 사주시고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 전전희선생님, 이현숙선생님, 전향옥선생님, 이어람선생님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성: 다 좋아해요. 이어람선생님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석지인 교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잠 언 3:1-4 인도자
28 다함께
 인도자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로마서 8:1-2 인도자
 다함께
570, 565 다함께
 다함께
 정아영 어린이

<대표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사무엘상 1:24-28 장성아 교사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린이·꾸러기사랑방
교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569 다함께
 석지인 교사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진용 권하민 최민용 / 봉헌위원 : 최시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나라의 동역자로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한나와 엘리 당시 사사시대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습니다.[삼상2:26]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말로 훈계하였습니다.[2:25] 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2:29] 한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1:28]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옷을 지으며 기도했습니다.[2:19]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바르게 세워주며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부모의 기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한계를 넘으며 자녀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것은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시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 합시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도 신앙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도록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전선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오전에 비예보가 있었지만 오지 않았던 화요일에 장흥조각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에 차에서 조각이 무엇인지 물으니 종이 찢어진 조각 물건 부서진 조각을 이야기합니다. 조각공원에 도착하니 작품을 보자마자 앞에서 옆에서 자리를 잡고 사진을 찍어달랍니다. 가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지나고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지나고 라일락 향기를 맡아보고 놀이터가 되어주는 작품들을 만나고 옆으로 흐르는 냇물을 봅니다. 글자를 모르는 꾸러기들이지만 알려주지 않아도 작품 제목을 잘 알아맞춥니다.

느티나무 그늘에 돛자리를 펴고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도시락을 먹는데 커다란 개미들이 올라오고 느티나무 꽃이 계속 내려옵니다. 뚜껑을 도시락에 살짝 걸쳐놓고 개미들은 한 마리씩 돛자리 밖으로 내보내며 점심을 먹습니다. 개미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흘려도 잘 치워주겠다 이야기해봅니다. 내 거 먹어볼래?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김밥이랑 유부초밥도 과일도 자연스레 친구와 나누어 먹습니다.

오후에는 장욱진 미술관에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여러 화가의 작품을 2층에서 장욱진 화가의 작품을 만났습니다. 월요일에 화가 장욱진에 대한 책을 펼쳐 한 두장 보여주시던 우리 친절한 이어람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상을 조요히 나누며 둘러봅니다. 지하에 있는 1년 뒤에 배달한다는 느린 우체통에 글씨는 없지만 오늘의 느낌이 담아 그림을 그린 엽서를 넣었습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푸르름과 분홍과 노랑이 절정을 이룬 한주였습니다. 트렘플린에서 하늘끝까지 뛰어 오르는 어린이들과 참 잘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주제탐험 글씨쓰기 마지막 프로젝트로 좋은 글을 발췌하여 자신만의 예쁜 글씨로 꾸며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스티커 3장을 좋은 글과 글씨에 붙여주는 시간을 가져 보았는데 우리도 마음먹고 쓰면 참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

배움과 가르침

감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4학년 은우가 전학을 갔습니다. 모두 아쉬워했지만 편지로, 선물로 기도로 아름답게 보내줄 줄 아는 지혜로운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잘 크겠지요.

도서관 이야기는 책 반납 시 뽑기 한 장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상품 전달식이 있었는데 작은 연필깎이에도 와~하는 친구들이 귀여웠습니다. 앞으로 책을 더 많이 빌려 보겠죠~(기대)

한 주간 즐거운 어린이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1학기 여행의 꽃, 도보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학교까지 약 106km를 3박 4일 동안 무거운 짐과 다채로운 날씨를 견디며 걷는 고된 여행이지만 힘든 만큼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가는 도보여행 같지 않게 잘 걸어준 저학년들, 선배로서 귀감이 된 고학년들 덕분에 앞섰던 걱정과 편견은 부서지고 서로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힘들 때 함께 노래 부르고 얘기를 나눴더니 발이 아픈 것도, 가방이 무거운 것도 잠시 잊을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못 했을 일이지만 함께 하니 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리 힘들어도 끝은 있다는 것. 그러니 이왕 하는 거 즐기면서 한다면 참 유익하다는 것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또 멋쟁이들 곁에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흔쾌히 장소를 제공해주신 사복사랑자람터의 선생님들, 치킨과 아이스크림으로 힘을 더해준 동문회, 뜨거운 박수와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반겨주신 학부모님들,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멋쟁이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라고 믿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멋쟁이들은 가정학습 기간으로 보냅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보여행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공동체 식구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

< 교사 : 박예나 >

어릴 적을 떠올리며

어린이 주일을 맞아 처음으로 주보 글을 써본다.

나의 어릴 적 유년 시절은 말 그대로 시골의 까마귀 얼굴을 한 깡촌 아이였다.

넙디넙은 김포평야를 매일 같이 바라보며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집 앞동산이나 들에서 개구리잡고, 참게도 잡고, 물고기 잡아 집에 가져와 매운탕 끓여 먹고 또 밖에 나가 놀다 밥 먹으라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야만 집으로 돌아갔다. 노느라 지친 몸을 씻지도 않고 요즘 말로 땀국물이 얼굴과 목에 아이구~ "까마귀가 친구 하자" 할 정도로 참 잘 뛰어놀았던 것 같다. 저녁에 밥 먹고 부모님이 이웃집 텔레비전 (참고로 그 당시에는 동네에 tv가 많이 없었음) 시청하러 마실을 가시면 이부자리 위에서 형들과 레슬링 하다 지쳐 그대로 잠들었던 기억이 난다.

항상 계절 따라 재미있게 놀 수 있었던 그곳, 고향에는 자그마한 시골 교회가 있었다. 당시 교회에 다니진 않았지만 딱 세 번 어린이날과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적도 있었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때만 출석했던 기억이 있다. 때마다 교회 선생님들께서 동네를 순회하셨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교회에 갈 때마다 선물을 한 아름씩 받아서 집에 오곤 했고, 교회는 참 돈도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고 순수함으로 마냥 즐거워하며 산 어린 시절이 그립고 또 그립다. 지금은 행복한 어린 시절 덕에 마음만은 항상 부자로 살고 있다.

요즘 일을 하고 있으면 공동체 가득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장소도 다르고 노는 방식이 달라도 마냥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입꼬리가 올라가며 흐뭇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어느새 번진다. 예구 어느새 할아버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린 시절 추억에 빠져보시길 바라며... 떠오르는 말씀한 구절 나누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18:3)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히브리서 10장 23~25

인 도 : 정다운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 중국 상하이를 위해 >

코로나19로 상하이가 봉쇄된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들은 상하이에서 넘어오는 길을 차단하고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닌 질병에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식량이 부족한 고통속에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부와 인권이 무시된 강압적인 정책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안사공동체 >

- 안사공동체는 요양원입니다. 이번에 치매전담시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 안사장애인공동체는 지적장애인시설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5월, 가정의 달을 생각하며 연령별사랑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 도보여행 중에 있는 멋쟁이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연두 빛깔로 가득한 공동체 마당에는 라일락 향이 가득합니다. 공동체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5월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쑥쑥 자라가는 공동체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무들의 키가 자라고 꽃들이 봉우리를 만개하듯 다음 세대들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키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꽃 피워 가리라 확신합니다. 한 주간 동안 멋쟁이들의 도보 여행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의 자녀를 넘어 우리의 아이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넘어 공동체 전체 식구들을 더욱 생각하며 섬겨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 장영미 전도사 >